

2025년 제26회

박재삼 문학제

제12회 박재삼문학상 시상식

일 시 : 2025년 6월 21일(토) 15:30

장 소 : 박재삼문학관 야외무대

주최 · 주관 박재삼문학상 운영위원회

후 원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고성그린파워(주), 뉴스사천, 경남문인협회,
사천문인협회, 마루문학회, 박재삼기념사업회,
박재삼문학선양회, 동다차살림학회, 마미플라워회,
정우차인회

윤덕점(박재삼문학상 운영위원장)

노산공원 싱그러운 초록의 뜰에서 올해 26회 박재삼문학제를 맞이하였습니다. 이곳의 자연을 푸르게 노래하다 가신 박재삼 선생님께서도 지금 이 뜰에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일찍이 한국 문단 서정시의 세계에 새로운 길을 내신 분, 가난하고 힘들었던 계절의 뒀안길에서도 시의 짝을 찾아내는 밝은 눈을 가진, 지금도 우리 가슴에 살아계신 박재삼 시인! 꾸밈없이 맑고 순수한 서정은 저 노산 앞바다처럼 우리 곁에서 푸르게 찰랑입니다.

박재삼문학상은 올해 열두 번째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박재삼문학상이 적은 시상금에도 불구하고 문인들이 받고 싶어 하는 까닭은 시인의 삶과 시가 맑고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수상자 선정과정 또한 맑고 투명하기에 매년 좋은 수상자가 선정되어 저희는 자부심을 가집니다.

올해 수상자로 선정되신 남길순 시인은 창비에서 출간된 「한밤의 트램펄린」으로 수상하셨습니다. 박재삼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닮은 서정으로, 구례의 숨죽인 여운의 울음을 살아있는 울음으로 노래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슬픔을 공동체의 거룩한 그림자로 만들었습니다. 더욱 정진하셔서 국민을 설레게 하고 위로하는 좋은 작품 많이 쓰시는 더 큰 시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외 이번 문학제에서 시 백일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수상하신 분들도 더 많은 성취 이루시기를 빕니다. 또한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문학제를 즐겁고 멋지게 만들어주신 시 창작 노래 부문 수상자와 시 엽서 공모전 수상자께도 큰 박수 보냅니다. 먼 길 오가며 심사를 맡아주신 김이듬, 손진은, 현택훈, 장석남, 이경림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수고하신 운영위원들과 지역 문인들, 사천시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들, 사천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남도 사천교육지원청, 고성그린파워(주) 등 후원해 주신 단체에도 고개 숙입니다.

오늘 행사에 동행하며 멋진 꽃꽂이로 문학제의 격을 높여주신 윤미경 플로리스트, 맛있게 차를 우려주신 정우차인회, 동다차살림학회, 수상작품집을 출간해주신 도서출판 곰단지, 명정엽, 이윤희 플루티스트, 김태근 시낭송가, 김나영 첼리스트를 비롯하여 문학제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빛냅니다. 애쓰셨습니다.

◆ 첫째 날<6월 20일 금요일> : 지역민, 학생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시간	주요 내용	장소
10:00~12:00	박재삼 시 백일장 (일반 / 초, 중, 고)	박재삼문학관 앞뜰
12:00~13:00	점심 식사	
13:00~17:00	백일장 심사(예심, 본심)	박재삼문학관 다목적실

◆ 둘째 날<6월 21일 토요일> :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시간	주요내용	장소
10:00~18:00	시와 꽃의 만남전	박재삼문학관 앞뜰(마미플라워)
10:00~18:00	시 엽서 공모전 작품 전시	박재삼문학관 앞뜰
12:00~13:00	점심	
13:00~15:00	박재삼 시 세계 문학 특강	박재삼문학관 다목적실 (고영조 시인)
13:00~18:00	찾자리	박재삼문학관 앞뜰(정우차인회)
13:00~18:00	시와 우리 찾그릇 전시	박재삼문학관 앞뜰 (우림이, 나눔이, 보듬이 및 시화 전시)
13:30~15:00	시 노래 경연대회 본선	박재삼문학관 앞뜰
15:30~17:30	개막식 및 시상식	박재삼문학관(본행사장)
17:30	폐회	

일시 : 2025년 6월 21일(토) 15:30~17:30

장소 : 박재삼문학관 야외무대

주관 : 박재삼문학상 운영위원회



제12회 박재삼문학상
남길순 《한밤의 트램펄린》
박재삼 시 백일장(학생·일반)
문학 특강
시 엽서 공모전
시 창작 노래 경연대회

박재삼문학상을

일찍이 누구도 가지 못한 서정미학의 길을 뚫어 우리의 삶과 문학을 소통시켜준 박재삼 시인! 삶의 체험과 감정의 절제를 통해 한국문단의 큰 획을 그은 박재삼 시인의 문학사적 성과와 위치를 기리고, 나아가 시인의 문학과 고향에 대한 깊은 사랑을 오늘을 사는 우리 삶의 사랑이자 양식으로 삼고자 제정되었다.

《박재삼문학상 수상작품집》 발간

구분	시간	주요내용	비고
여는 무대	15:30	플러트연주	명정엽, 이윤희 플루티스트
	15:38	시낭송	김태근 시낭송가
개회식	15:45	개회 및 국민의례	윤향숙(사무국장)
	15:47	내빈소개 및 인사말씀	윤덕점(운영위원장)
	15:52	축사	시장님, 의장님
	15:58	축사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문학상 시상	16:01	경과보고	홍옥숙(위원)
	16:03	심사평	장석남시인
	16:08	시상	시장님
	16:11	수상소감	남길순 시인
시 백일장 등 시상	16:21	심사평	주강홍 시인
	16:26	시상 · 백일장 5명(각 부문 장원) · 시 창작 노래 경연대회 1팀(대상) · 시 엽서 공모전 1명(대상)	시장님
	16:36	시상 · 시 엽서 공모전 1명(최우수)	의장님
	16:39	시상 · 백일장 9명(차상)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16:44	시상 · 시 창작 노래 경연대회 1팀(금상)	고성그린파워(주) 대표
	16:46	시상 · 백일장 외 2개 부문 27명	윤덕점(위원장)
공연 및 폐회	17:01	첼로연주	김나영 첼리스트
	17:11	시 창작 노래 경연대회 대상수상자 공연	
	17:26	단체 사진 촬영 및 폐회	

남길순 『한밤의 트램펄린』



1962년 전남 순천시 월등면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순천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였으며, 1999년 『순천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지면에 시를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 『시로 여는 세상』으로 등단한 후 시집 『분홍의 시작』과 합동시집 『시골시인Q』, 디카시집 『호텔 순천만』 등을 발간한 바 있다. 수상시집 『한밤의 트램펄린』으로 제12회 박재삼 문학상을 받게 되었다.

◆ 심사평

끊임없이 곁으로, 앞으로 위로 스쳐 가는 온갖 것들을,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것들을, 존재 자체가 질문이고 대답인 것들을. 그의 시는 일상에서, 자연에서 아니 그 틈새에서 대상을 찾아내는 시이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살고 있다. 때문에 그의 시는 자연스레 향토적 서정을 담고 있다. 그 점은 박재삼 시인과 많이 닮아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언어도 삶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만큼 그의 시는 이 시대의 언어로 좀 더 세련되게 씌어졌다고 할까?. 그는 끊임없이 세계와 자신을 동일화하며 나이면서 너인 것들, 너이면서 그인 것들, 그이면서 그것인 것들에 눈을 주고 있다. 엄마와 내가 하나로 폭포가 되어 서로를 낚고 낚으며 거대한 보아뱀 한 마리가 되듯이.

심사 이경림(시인)

이 풍경은 흔한 풍경일 수 있습니다만 아무나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두가 ‘눈이 멀’어 있기에 보지 못합니다. 아니 눈이 멀어야만 보이는 풍경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러합니다. 이 멍멍한 시 한 편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속은 저 호수처럼 아주 아주 깊었으니까요. 나는 그랬습니다.

[구례]를 위시한 여러 편의 ‘지역, 혹은 지리산’의 역사를 양금으로 한 가편들에서 시인의 사유를 봅니다. 그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들의 지금 삶이 훌쩍 떠나 존재할 수 없다는 의식은 건강하고 그 양금이 바로 거름이라는 사실까지 보듬어 안고 있습니다. 그 건강에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심사 장석남(시인)

◆ 수상소감

목 터지게 울고 있을 개개비들에게

내가 상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다. 열심히, 좋은, 끝까지, 혼자, 이런 단어들이 나에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다. 하물며 박재삼 문학상이라니…… 수상 소식을 받은 날은 마치 번개를 맞은 것 같았다. 어디 숨어있다가 털미를 잡힌 기분일까. 그런데 입으로는 감사, 은혜, 고맙, 이런 말이 나오고 있었다.

시인으로 늦은 출발을 했다. 사람의 일, 여성의 소임 같은 나 아니어도 될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게다가 남편은 조력이 필요한 직업이라 사람, 두세 몫을 하며 살아온 것 같다. 결국 시인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공부를 좋아하는 성향 때문이었던 것 같다. 시 쓰는 사람은 한가할 틈이 없다.

“상을 많이 받은 시인인 줄 알았는데 첫 수상이라 해서 더 기뻐합니다.” 심사위원 이경림 시인의 말씀이다. 상은 부족한 한 시인을 제대로 해 보라고 세우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신을 숨기지 말고 까발리고 뽐내버려라.’ 이것은 오래 새겨 온 나의 주문인데, 상은 드디어 나를 발가벗기려고 한다.

- 중략 -

시인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심사위원들과 박재삼 시인을 받드는 사천시에 감사의 큰절을 드린다. ‘비루한 일상이든 서늘한 상처의 기억이든, 남길순이 품는 순간 온순해진다’는 말과 함께 시집 『한밤의 트램펄린』을 펴내 준 창비 편집부에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시는 변방이 없다. 산골짜기 내 고향에도 <박재삼 문학상>이라는 프랜카드가 매달려 있다고 한다. 밤낮 시 핑계를 대는 딸이 구순이 넘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 더없이 좋다. 지금 한창 목 터지게 울고 있을 순천문학관 앞 개개비들과 푸르름이 절정에 오르고 있을 순천만 갈대밭에 이 기쁨을 전한다.

시에 젊음을 바치는 시인들, 평생을 걸고 시를 쓰시는 선배 시인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칩니다.

시인 남길순

박재삼문학제 시 백일장 안내

1. 주관 : 박재삼문학상 운영위원회

2. 참가대상 : 일반, 초·중·고등학생

3. 백일장 개요

- 일 시 : 2025년 6월 20일(금) 오전 10:00~12:00(2시간)
- 장 소 : 박재삼문학관 앞뜰 (우천 시 실내)
- 접수마감 : 2025년 6월 11일(수)
- 접수방법 : 이메일로 신청서 접수 (365yun@naver.com)
 - 당일 현장접수 가능
 - 학교단위 참가 시 행사 담당자가 희망 학생 취합하여 신청서 제출
 - 준비물 : 필기구, 돗자리 외 (주관 측에서 원고지 제공)
- 부 문 : 운문(시) ※시제: 현장발표
- 발 표 : 2025년 6월 20일(금) 오후 5:00
 - (박재삼문학관 또는 사천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 입상자 : 시상식 참석 (장원, 차상, 차하)
 - 입상자 구비 서류 : 일반부 전체 입상자, 고등부 장원 입상자만 통장사본 지참

구분	상명	시상인원(명)	상금
일반부	장원(사천시장상)	1	50만 원
	차상(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장상)	1	30만 원
	차하(박재삼문학상 운영위원장상)	2	20만 원
고등부	장원(사천시장상)	1	30만 원
	차상(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장상)	2	10만 원
	차하(박재삼문학상 운영위원장상)	3	5만 원
	참방(박재삼문학상 운영위원장상)	9	2만 원
중등부	장원(사천시장상)	1	10만 원
	차상(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장상)	2	5만 원
	차하(박재삼문학상 운영위원장상)	3	3만 원
	참방(박재삼문학상 운영위원장상)	7	2만 원
초등부	장원(사천시장상)	2	7만 원
	차상(경상남도사천시교육지원청장상)	4	5만 원
	차하(박재삼문학상 운영위원장상)	6	3만 원
	참방(박재삼문학상 운영위원장상)	18	2만 원

· 문의전화 : 055-832-4953, 010-6769-0739, 010-4405-3877

문인 초청 문학 특강

2025년 6월 21일 13:00 박재삼문학관 다목적실(2층)

- 강의 제목 : 박재삼 시인의 시 세계 마주하기
- 강연 : 고영조 시인

전시 행사

- 시와 꽃의 만남전 : 플로리스트 윤미경(전, 마미플라워 회장)
- 시와 우리 찻그릇과 차의 만남전 : 동다차살림학회
- 시화 전시 : 사천문인협회 등

박재삼문학상 운영위원회

위 원 장 윤덕점(시인)

부위원장 차창수(시인, 마루문학회)

위 원 김 경(시인, 박재삼문학선양회장)

김여경(시인, 박재삼문학선양회 부회장)

남상미(사천시 문화예술과장)

이용우(시인, 사천문인협회장)

정점숙(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정삼조(시인, 박재삼기념사업회)

황용진(마루문학회)

홍옥숙(수필가, 박재삼문학관 운영위원장)

사무국장 윤향숙(시인, 박재삼기념사업회)

박재삼문학상 역대 수상자

- 1회 이시영 《경찰은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2012년
- 2회 이상국 《뽕을 적시며》 2013년
- 3회 이문재 《지금 여기가 맨 앞》 2015년
- 4회 고영민 《구구》 2016년
- 5회 이정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들의 목록》 2017년
- 6회 이홍섭 《검은 돌을 삼키다》 2018년
- 7회 박 준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2019년
- 8회 이병률 《이별이 오늘 만나자고 한다》 2021년
- 9회 복효근 《예를 들어 무당거미》 2022년
- 10회 송진권 《원근법을 배우는 시간》 2023년
- 11회 현택훈 《마음에 드는 글씨》 2024년
- 12회 남길순 《한밤의 트램펄린》 2025년

